

최욱경의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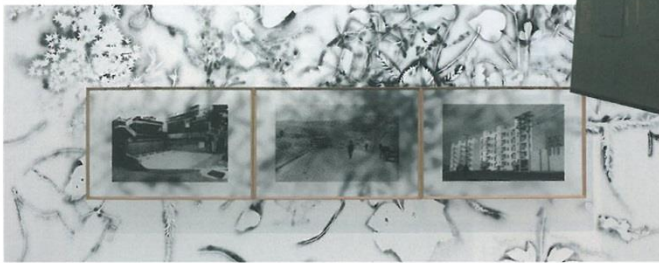
October, 2016 | 에디터 김경주



4



5



6



4 예술이 된 가구

(ART&LIFE)는 전시 제목 그대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가구와 만나 한데 어우러지는 장이다.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를 아트의 영역으로 끌어와 공간 속에서 어떤 조화를 보이는지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랄프 플라크, 리우 정용 등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은 이탈리아 디자인 가구 아르콜렉스, 가죽소파 대명사 박스터, 자연이 선사한 가구 리바1920과 만나 예술과 디자인의 아름다움이 교차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곡선과 직선이 한데 공존하는 가구를 보면 '예술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한다'라는 말이 동의하게 된다. 전시는 11월 24일까지 아트스페이스 벤에서, 문의 742-0788

Belinda Fox 'Heavy Weather', Watercolour, Ink, Drawing and Encaustic Wax on Board, 200x110cm, 2015.
Luca Noehtlo 'Serena Armchair & Doge Pouf', Arflex.

5 최욱경의 면

강렬한 컬러, 대담한 터치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최욱경의 개인전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가장 깊게 한 시기(1963년부터 1978년까지)에 나왔던 작품 70여 점을 공개한다. 최욱경은 자유분방한 붓질과 원색의 대비를 특징으로 '추상표현'이라는 서구적 양식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그 시작을 알린 작가다. 하지만 귀국과 동시에 한국적 구도와 컬러감, 한지나 먹을 재료로 사용하는 등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한국의 자연을 작품 속 주요 소재로 다루는 것에 이르며 작가의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전시는 10월 30일까지 국제갤러리 2관에서, 문의 735-8449

최욱경 'Reject 불합격품', Acrylic on Canvas, 93.5x79cm, 1974.

6 올해의 얼굴

한국 현대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올해의 작가상 2016>이 열렸다. 창작 활동에 몰두하는 예술가의 작업실을 2층 높이의 건물로 지어 관객들의 출입을 하하고 작가와의 직간접적인 소통을 이뤄낸 김을, 사진 매체가 가진 형식적 한계를 넘어 경직된 해석의 틀을 깬 백승우,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생존을 위해 벌이는 사투를 다양한 현상으로 푼 믹스라이스, 탈북과 정착을 주제로 조각과 퍼포먼스를 선보인 함경아가 그 주인공이다. 다가오는 10월 13일에는 각 작가들의 전시 작품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올해의 수상자를 뽑는다고 하니 주목해보자. 전시는 2017년 1월 1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의 3701-9500

김을 'Twilight Zone Studio', 2016.

사진: 최욱경